

# 의존문법의 이론\*

—Valenz를 중심으로—

이 병 찬

(독문과 교수)

## I. 서

의존문법의 출발은 1934년 Tesnière의 의존이론에 대한 논문에서 시작되고 1953년에 그의 저서에서 그 개요가 밝혀진 이후 그의 사후 1953년에 *Elements de syntaxe structurale*에서 (독일어판은 1980년에 *Grundzüge der strukturalen Syntax*라는 제목으로 U. Engel에 의하여 번역 됨) 비로소 의존과 Valenz의 이론체계가 확립되게 되었다. 물론 Valenz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정한 어떤 품사의 단어들은 일정한 다른 어떤 품사의 단어들로 충전시켜야 하는 빈자리(Leerstelle)를 하나나 또는 여러개를 주위에 비워놓고 있다(Bühler 1965 S. 173)」라는 주장으로 Valenz이론에 대한 계기를 1934년에 Bühler가 제공하여 주었고 1949년에는 A.W. de Groot가 의존과 Valenz이론을 제창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폴란드 말로 썼기 때문에 세계에 알려지지 않는 않았다. 이 이론이 독일에 알려졌을 때는 이미 Tesnière의 이론이 독일화 되었기 때문이다. Brinkmann과 Erben은 1960년에 이 이론을 독일어문법에 적용시켰고 Grebe도 1959년에 Duden 문법사전에 이를 응용하였다. 이렇게 하여 이 이론은 독일에서 주로 Helbig(1966), Heringer(1967), Bierwisch(1967), Junker(1969), Bondzio(1971), Klein(1971), Flämig(1971), Engelen(1975), Engel(1977) 등에 의해서 이론이 심화되고 형식화되고 실용화 되었다.

Valenz개념의 이런 발전과정에서 일어난 Valenz의 이론과 문제점을 제기해 보는 것이 이 논문의 취지다.

## II. 언어학에 나타나는 Valenz

Tesnière의 구구조주의 통사론은 구조적 순서와 선형적 순서의 문법적 관계를 규명하는데서 출발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언어를 말한다」는 것은 이 언어의 구조적인 순서를 선형적인 순서로 옮긴다는 것을 의미하고 역으로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이 선형적인 순서

---

\* 본 논문은 1989년도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

를 구조적인 순서로 옮긴다는 것을 의미한다(Tesnière 1980 S. 34). 예를 들면 그는 Alfred spricht. 라는 문장의 내면적인 구조가 몇 개의 요소로 형성되어 있는가를 살핀다. 전통문법에서는 보통 이것이 두 개의 요소로 이루어진 문장이라는데 반하여 Tesnière는 이것을 세 개의 요소로, 즉 Alfred와 spricht에다 이 두 요소를 연결시켜주는 문법적 연결관계(Konnexion)를 합하여 세 개의 요소로 본다. 이 때 이 두 요소의 연결관계는 염소(Chlor)와 나트륨(Natrium)의 결합이 염화나트륨(Natriumchlorid)이라는 새로운 물질을 형성하는 것처럼(Ebenda S. 26.) Alfred와 spricht가 결합하여 Alfred spricht. 라는 완결된 관념을 나타낸다. 이렇게 요소끼리 결합하는 능력을 그는 화학의 용어를 빌어 Valenz라 하고 이 Valenz는 그가 나눈 품사분류<sup>1)</sup>에 따라 다분히 계열적(paradigmatisch)으로 상이한 독자적 가치를 가진 실사로서 통합적(syntagmatisch)으로 그 결합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문장에서 이것은 늘 다른 실사가 그 파트너가 되어 결코 단독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같이 어떤 실사가 어떤 다른 실사와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임의적이거나 자의적이 아니고 어떤 일정한 규칙성에 의지하는 것으로 그것은 Valenz가 1. 어떤 실사의 필수적 결합이나 또는 문맥상의 가능한 결합이나. 2. 실사의 문맥상의 결합이나. 3. 문장에서 서로 다른 품사의 실사들 간의 문맥상의 관계나. 4. 의미 통사론적 측면에서 문장에 실사들 간의 결합가능성의 관계나. 5. 문장에서 의미론적 그리고/또는 통사론적 파트너로서 실사들간의 결합가능성이냐로 구분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Tesnière는 고전적인 의미에서 실사가 다른 실사와 결합하는데 그 우열관계만 보고 이 우열관계에서 상위요소를 지배소로 하고 하위요소를 의존소로 설정하여 의존관계문법을 만들었다. 예를 들면 Alfred spricht에서 (1)과 같이 spricht를 상위요소로 보고 Alfred를 하위요소로 보아 명사는 동사에 의존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동사가 명사를 지배하게 된다.

(1) spricht  
|  
Alfred

이렇게 보는 이유는 종래 전통문법이나 변형문법에서 문법적 기능으로 주어와 술어를 대등한 계층에 놓고 나머지 보속어나 첨가어는 동사의 하위범주화로 구조를 분석시킨 것과는 다르게 유럽언어의 대부분이 동사가 중심이 되어 하나의 완결된 관념을 나타내기 때문에 동사가 문장의 중심이 될 때는 주어에 특수한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데 있었다.

이렇게 해서 Tesnière는 의존문법의 범주내에서 동사에 의한 Valenz개념을 도입하여 이의 하위개념으로 actants와 circonstants를 설정하였다. 이때 actants의 수는 0가(avalente), 일

1) Tesnière는 전통문법의 9품사 내지 10품사에서 크게 벗어난 실사와 허사 두 품사만을 인정한다. 관념(Idee)을 나타내고 의미론적 기능을 나타내는 Alfred, singt, rot... 등과 같은 실사(volle Wörter)와 스스로 관념을 나타내지 않고 순전히 문법적 기능만 하는 und, daß, von... 등과 같은 허사(leere Wörter)라는 두 품사로 분류하여 그 기준을 관념의 유무와 의미론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에 두고 있다. 실사는 전통문법의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로 하위분류시키고 있다.

가(monovalente), 2가(divalente), 3가(trivalente)로 동사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circonstants*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Tesnière의 이 Valenz개념이 독일어문법에 최초로 응용된 것은 Brinkmann과 Erben에 의해서다. 이때 Brinkmann은 Tesnière의 actants를 공연사(Mitspieler)라는 용어로 그의 문법에 수용하였다(Brinkmann 1971 S. 223f). 그러나 Tesnière의 actants가 전적으로 격을 가진 명사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그는 필수상황규정사(notwendige Umstandsbestimmung)도 (2)와 같이 actants에 귀속시키고 있는 점이 그와 다르다. 그는 문장에서 빈자리를 채우게 할 수 있는 동사의 능력을 Tesnière와 같이 Valenz라 하고 이 빈자리에 비어있는 그 위치자체를 Mitspieler라 한다(Ebenda).

(2) Er legt das Buch auf den Tisch.

(2a) \*Er legt das Buch.

Erben의 경우 이 Valenz는 결합가(Wertigkeit)로 용어가 변모된다(Erben 1972 S. 231). 그는 동사의 전장(Vorfeld)과 후장(Nachfeld)에 어떤 그리고 몇개의 보족어규정사(Ergänzungsbestimmung)가 나오느냐는 것은 동사의 종류와 결합가에 달렸다는 것이다(Ebenda). 그는 이 동사의 결합가의 측면에서 독일어문장의 기본형(Grundmodell)을 발전시키고 있다. 그는 Tesnière, Brinkmann과는 달리 또 동사의 보족어규정사에 주어, 목적어, 술어내용사(Prädikativ) 그리고 구조적으로 필수적인 부사규정사(Adverbialbestimmung)까지 포함시키고 있다(Ebenda).

Admoni의 경우는 이 Valenz가 결합능력(Fügungspotenz)으로 나타나고 이것은 동사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품사에도 나타난다는 것이다(Admoni 1970 S. 80ff). 말하자면 그는 모든 품사에 내포되어져 있고 또 문맥과 환경의 영향으로도 부분적으로 실현되는 Fügungspotenz 또는 Valenz가 있다고 주장한다(Ebenda S. 80ff). 이 능력은 품사속에 잠재하고 있다가 구체적인 발화과정과 접촉함으로써 소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Admoni는 Bühler와 달리 명사에 대한 부가어적 형용사의 관계와 같은 의무적 Fügungspotenz와 부가어적 형용사에 대한 명사의 관계와 같은 수의적 Fügungspotenz를 구분한다. 이 개념은 지배적 품사에 대한 의존적 품사의 관계는 항상 의무적이나 의존적 품사에 대한 지배적 품사의 관계는 수의적일 수도 있고 의무적일 수도 있다(Ebenda S. 84f, Helbig 1979 S. 211, Stepanova 1978 S. 122).

Katznelson, Lomtew, Leikina, Meltschuk 등에도 Valenz 개념은 나타난다(Ebenda). 이들도 동사를 가지고 Valenz를 예시하고 동사에 의한 다른 성분들의 의존관계를 기술하기 위해서 Valenz를 이용한다. 같은 의미로 Abramov도 Fügungspotenz의 특성이 모든 품사에도 적용되는 것이지만 이중에서 문장의 구조적 중심으로서의 동사에서 출발하는 능력을 Tesnière와 마찬가지로(Tesnière S. 37) 원심적(zentrifugal)이라 하고 동사에 향하는 능력을 구심적

(zentripetal)이라고 구분지우고 여기서 다른 모든 품사는 원심적능력과 구심적능력을 공유하고 있는데 반하여 동사는 원심적능력만 있다고 주장한다(Ebenda, Vgl. VII). 이와같이 Valenz개념은 비단 동사나 다른 품사에 적용될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적요소에도 적용되고 있다.

### Ⅲ. Valenz 설정의 문제점과 그 극복

Tesnière에서 출발한 Valenz개념이 이상과 같이 여러 층위에 확대되어 간테도 불구하고 문체점을 그 내부에 잉태하고 있었다. 이것은 Tesnière가 Valenz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설정 해주지 않는데 그 문제점과 원인이 있다. 그것은

1. 그의 Valenz가 형식적 또는/그리고 개념적 범주나 또는 표현층위범주 또는/그리고 의미내용층위범주나가 분명치 않다. 이것은 Valenz가 개별언어 내부의 통사론적 재료로 관찰될 수 있는 형식상의 특성이나 또는 개념적인 것의 보편성을 띤 관계논리학(Relationslogik)에 의해서 기술되어야 하는 특성인가의 양자택일을 강요한다. 그 결과 형식적 특성과 의미론적 특성을 혼동하고 있다.

2. Tesnière는 의미론적 층위에서 actants(Handelnde)와 circonstants(Umstände)를 구분했으나 동사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요구되고 있지만 (3~4)처럼 의미론적 의미에서 Umstand를 나타내는 Aktant가 통사론적 의미에서 존재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두 층위를 엄격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3) Berlin liegt *an der Spree*.

(4) Er legte den Bleistift *auf den Tisch*.

3. 그의 actants는 (5~6)처럼 표층구조에서 항상 의무적으로만 나타나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 사실에서 actants는 의무적 actants와 수의적 actants로 구분되어야 한다.

(5) Er liefert (*dem Kaufmann*) die Butter.

(6) Er wartet (*auf den Freund*).

4. 그가 Valenz에 의존하는 성분을 정할 때 전치사격 규정사는 제외시키고 순수한 격명사에만 제한을 두었다. 그 결과 다음 (7~8)처럼 형태론적 형식적 차이만 나게하고 통사론적 의미론적 차이를 근본적으로 제외시켰다. 그러기 때문에 전치사구(Präpositionalphrase)에 적절한 Valenz모델이 제공되어야 한다.

(7) Er schreibt *dem Vater* einen Brief.

(8) Er schreibt *an den Vater* einen Brief.

이와같은 여러 문제에 직면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60년대말에 Helbig/Schenkel의 Wörterbuch zur Valenz und Distribution deutscher Verben이

출현하였다. 통사론적 결합가와 동사로 부터 출발한 이 Valenz 모델을 시발로 70년대에는 다른 품사(형용사, 명사)에의 모델개발로 이어졌고 그중에도 의미론적 성분분석 모델과도 연관되는 여러 층위의 모델들이 개발되었다.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여태까지 모호한 문제로 남아있었던 이론적인 문제를 풀어나가고 이와 연관되는 명확한 기준 위에서 기술하는 것이 선결 과제가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 Helbig는 통사론적인 필연성의 개념을 확립시켜나갔다. 그는 먼저 자유첨가어(freie Angabe)로서 문장에서 통사론적으로 마음대로 첨가시키거나 삭제시킬 수 있는, Valenz와 관계없는 성분을 Valenz와 관계있는 성분과 확실히 구분시킬 수 있는 기준을 찾아내고, 후자를 또 의무적 Aktant와 수의적 Aktant로 양분시켰다. 이 모두를 소거조작(Eliminierungstest)에 의해서 조작적으로 구분시켰던 것이다. 이 조작으로 Tesnière의 의미에서 Subjekt와 Objekt같은 actants뿐만 아니라 전통문법의 Umstandsbestimmung의 일부도 후자에 산입시켰던 것이다. 거기다가 Prädikativa, Objektprädikativa, bestimmte Nebensätze, Infinitivkonstruktion도 여기에 산입시켰다.

이와같은 바탕위에서 그는 독일어의 동사의 Valenz와 분포를 기술하는 삼단계의 모델을 만들었다. 이 삼단계는 Valenz, Leerstelle, Aktant의 도움으로 이 Aktant가 환경(Umgebungen)의 하집합으로 단계를 구성하게 되어 있다. 이때 Valenz는 obl. Akt.나 fak. Akt.에 의해 채워져야 하는 일정한 빈자리를 자기 주위에 열어놓고 있는 동사의 능력을 의미한다. 여기서 Valenz는 의미론적 통사론적 의미로 파악되고 있고 또 의미론적 통사론적 빈자리도, 통사론적 충전자(Besetzung)도 갖고 그 개념은 Valenzträger에 의존되는 성분, 즉 Valenz파트너에 대한 동사의 추상적 관계도 포함시킨다.

Leerstelle는 동사에 의해서(또는 다른 Valenzträger) 요구되고 의무적으로 또는 수의적으로 충전되어야 하는 위치를 의미한다. 이 위치는 동사(또는 다른 Valenzträger)의 위치배치도(Stellenplan)에 고정되어 있다.

Aktant(od. Mitspieler)는 부분적으로 Tesnière나 Brinkmann과는 일탈된다는 의미에서 이 Leerstelle를 채우는 성분을 말한다.

Aktant를 적절하게 기술하고 문장에서의 그 역할을 정하기 위해서는 Aktant의 수, 즉 좁은 의미에서 Valenz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오히려 우리는 이의 통사론적이고 의미론적인 종류(Art), 즉 동사(또는 다른 Valenzträger)의 분포를 보아야 한다.

이때 언어적 요소의 분포는 Harris의 의미로 언어적 요소가 생기는 환경의 총화를 말한다. 또 어떤 요소 A의 환경(environment)은 공기, 즉 다른 요소에 의해서 정해진다. 따라서 A는 다른 요소와 함께 생겨서 발화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분포는 그 속에서 어떤 요소가 나타날 수 없는 환경과는 달리 그 속에서 어떤 언어적 요소가 나타나는 모든 환경(Kontext)의 총화다. 분포분석은 분포에 입각해서 의미단위(Bedeutungseinheiten)를 서로

구분하기위한 방식이다. 이때 우리는 첫째, 분포를 의미와 일치시켜서는 안된다는 것과 둘째, 이 분포가 의미의 형식적 반영(Reflex)이라는 것과 셋째, 의미와 분포간에는 일대일의(직접적인 동질의) 관계가 없다는 것 등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와같은 분포개념에서 출발하여 우리는 동사의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생기는 모든 성분을 Valenz와 연관시켜 파악하지 말고 Valenz에 의존된 구성적인 성분을 Valenz와 연관시켜 파악하여야 한다. 자유성분과 Valenz와 무관한 성분은 Valenz와 연관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Valenz와 관계되는 환경만이 환경(분포)의 하집합이 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Valenz와 분포의 개념정립에 의거해서 독일어동사는 다음 삼단계모델에 따라 해석된다.

제 I 단계) 모든 동사에 대하여 Aktant의 양적 숫자, 즉 통사적 Valenz가 확정되게 된다. 예를 들면 erwarten<sub>2</sub>와 rauben<sub>2+(1)=3</sub> 등이다.<sup>2)</sup>

제 II 단계) 생성문법의 엄밀하위범주화와 마찬가지로 동사의 환경에 따라서 Aktant를 Sn=Substantiv im Nominativ, Sa=Substantiv im Akkusativ, Sd=Subst. im Dativ, pS=Subst. mit Präposition, NS=Nebensatz 등과 같이 질적으로 표현한다. 예를 들면 제 I 단계에서 얻어진 geben<sub>3</sub>은 제 II 단계에서 geben→Sn, Sa, Sd로 명시시키고 berichten<sub>1+(2)=3</sub>은 berichten→Sn, (Sd), (Sa/pS/NS)로 명시시켜 준다.

- (9) Ich berichte.
- (10) Ich berichte ihm.
- (11) Ich berichte ihm mein Erlebnis.
- (12) Ich berichte ihm über meine Reise.
- (13) Ich berichte ihm, wo ich gewesen bin.

제 III 단계) 동사의 의미론적 환경에 따라서 Aktant를 Hum(=menschlich), ±Anim(±belebt), Abstr(=abstrakt) 등과 같이 질적으로 확립시킨다. 제 III 단계에서는 제 I 단계에서 양적으로 밝혀지고, 제 II 단계에서는 통사 형태론적 형식에 대하여 결정되었던 Aktant에 의미론적 내용을 덧붙임으로서 구체화된다. 이러한 규칙은 엄밀하위범주화와 구분되어 선택 규칙과 같은 것으로 표현된다. 예를 들면 bewundern의 경우 Sa에는 선택제약이 없으나 Sn에는 Abstr가 아니고 Hum이어야 한다.

- (14) Die Jungen bewundern ihre Aufrichtigkeit.
- (15) \*Ihre Aufrichtigkeit bewundert die Jungen.

이 단계에 들어서면 제 III 단계는 전통문법과 통사론에서 다루는 범위를 벗어난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는 명사의 의미론적 분류, 어휘의미론, 어의 어휘론 등의 문제가 교차되고 이 문제들은 자연스레 해당동사의 어휘의미론과 연관되어 넓은 의미로 Valenz의 일종으로

2) 숫자는 obl. Akt.의 숫자이고 괄호속의 숫자는 fak. Akt.의 숫자다.

계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Valenz이론은 통사적 층위에서 논리 의미론적 층위로 확대되고 또 동사에서 다른 품사에도 확대되어 갔다. 말하자면 의미론적인 토대가 없는 많은 통사적 현상들이 미흡하고 단지 피상적으로 기술될 수 밖에 없었고, 언어의 복잡한 기술과 관련하여 의미론적 연구가 필수적으로 대두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사실은 동사의 통사적 환경의 확인만으로는 Valenz기술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확실히 [Hum], [±Anim]과 같은 종류의 의미론적 자질은 이미 일반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자질은 나아가 핵의미자질로 계속 분화되고 Valenzträger의 의미자질과 결부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와같은 방법에서 비로소 통사적 Valenz 배후에 논리 의미론적 Valenz가 관찰되게 된다. 여기에서 자연적으로 Valenz분석과 의미분석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통사론적 Valenz, 논리 의미론적 Valenz, 의미론적 자질분석간의 관계문제가 제기된다. 이때 의미론적 Valenz는 개별 의미 구성소의 결합가능성에 좌우되는 것이 확실하다. 예문(16)에서 fällt의 의미성분

(16) Der Junge fällt in das Wasser.

은 a) schnell b) unwillkürlich c) nach unten gerichtet d) Bewegung 등의 자질을 나타내고 이 가운데서 b)는 주격의 자질이 (16 a)처럼 [menschlich]/±belebt 등으로 나타난다. c)와 d)는 의미론적으로 방향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통사론적 층위에서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16 a) Der Junge

Die Katze fällt in das Wasser.

Der Stein

⋮

(16b) Der Junge fällt.

마찬가지로 stehen의 자질은 상이한 통사적 환경에서 [+Zustand], [+lokal gebunden]인데 반하여 stellen의 경우는 전자보다 통사적 층위에서 1가가 늘어나고 [caus]라는 의미자질이 첨가된다.

(17) Der Kinderwagen *steht* im Garten

(18) Sie *stellt* den Kinderwagen in den Garten.

다음의 (19~22)도 마찬가지다.

(19) *Ordnung* herrscht. [adesse]<sup>3)</sup>

(20) *Er* schafft *Ordnung*. [caus(x adesse(y))]

(21) *Er* bekommt *den Brief*. [incep(x, haben)]

(22) *Sie* gibt *ihm den Brief*. [caus(x, bekommen)]

3) caus(=bewirken), adesse(=da sein), incep(=beginnen)

#### IV. 상이한 층위의 Valenz

##### 1) Logische Valenz

의식속에 반영된 실제의 사태는 하나의 빈자리(x)나 또는 여러개의 빈자리(x, y, ...) 등을 갖는 논리적 술어(P나 R)로 형식화할 수 있다.

(23) Peter raucht. P(x)

(24) Peter besucht Inge. R(x, y)

(23)의 경우 P(x)는 Eigenschaft P von x, (24)의 R(x, y)는 x가 y에 관계(R) 된다는 것이다. 이때 논항은 통사적으로 동사에 의존하는 성분으로서의 Aktant와는 달리 논리적 술어(Funktor od. Operator)에 의존하는 성분을 말한다. 서술구조에 있어서 논리적 술어와 논항(od. Leerstelle)관계를 논리적 Valenz라 한다. 보통 언어적으로 술어의 Operator로서는 동사가 그 기능을 맡고 논리적 술어의 논항으로서는 명사가 그 기능을 맡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리적 층위에서는 이 언어적 실현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하나의 논항이나 여러개의 논항을 가진 논리적 술어가 중요하다.

##### 2) Semantische Valenz

일정한 술어에 대한 논항은 Agens, Patiens, Adressat와 같은 어떤 일정한 의미부류에 속하는 상응변항에 의해서 채워진다. 이것이 의미론적 Valenz다. 이것은 첫째 Valenzträger로서의 단어들에 일정한 의미자질을 가진 일정한 문맥 파트너를 요구하고, 다른 의미자질을 가진 다른 문맥파트너를 배제하고, 둘째 의미론적으로 일정한 의미자질에 의해 확정되어져 있는 파트너부류를 가진 빈자리의 충전(Besetzung)으로 조정되고, 셋째 문맥 파트너의 의미자질이 무모순이나 또는 모순이나에 따라 생긴다. 예를 들면 sagen과 denken 동사는 주어로서 menschliche Wesen을 전제로 하고 sehen과 erblicken은 Objekt로서 konkrete Wesen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25~26) 같은 문장은 독일어 문장이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이는 부사(구)는 동사의 의미자질에 배치되고 따라서 모순되는 [+frequentativ]와 [+lokal]의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Helbig 1982, S. 12f). (25)같은 문장은 Subjekt가 종속명사의 Prowort일 때만 가능하다. 즉 (27)같은 경우다. 그러나 그것이 개체명사의 Prowort일 때는 안된다. 따라서 의미론적 Valenz에서는 문맥 파트너간의 의미론적 무모순에 따라 조정되는 선택제약이 있어야 된다. 이때 핵의미자질은 분명히 보편성을 띠지만 일정한 어휘(소)에의 결속은 언어마다 다르다.

(25) \*Peter stirbt *manchmal*.

(26) \*Er kennt Peter *auf den Flughafen*.



(27) Die Operation ist immer lebensgefährlich für *den Patienten*. *Er stirbt manchmal*.

### 3) Syntaktische Valenz

논리적 의미론적 Valenz와는 달리 통사론적 Valenz는 첫째 상응변항이 특정형식으로 특정 문장성분과 어부류(Wortklasse)에 의해서 특정한 방법으로 통사적 형태론적으로 나타나고, 둘째 개별언어마다 다르게 어떤 일정한, Valenzträger의 측면에서 요구된 수와 종류를 가지고 빈자리를 의무적이거나 수의적으로 충전시키거나, 세째 논리 의미론적으로 존재하는 빈자리의 충전은 의무적이거나 수의적인 Aktant에 의해서 규제되고, 네째 그의 통사론적 형태론적 실현은 Substantiv im Nominativ, Akkusativ 등과 같은 일정한 격으로된 어부류 그리고/또는 Subjekt, Objekt 등과 같은 표층문장성분에 의해서 규제된다. 예를 들면 warten, erwarten, abwarten과 같은 동사들은 R(x, y)와 같은 개념논리적 관계를 진제하지만 Präpositionalgruppe, Akkusativ und/od. Nebensatz와 같은 종류뿐만 아니라 통사적 Aktant의 의무적이거나 수의적인 실현도 달라진다.

(28) Er wartet *auf den Freund*.

(28a) Er wartet.

(29) Er erwartet *den Freund*.

(29a) Er erwartet.

이것은 상이한 언어에서된 예에서 비로소 확인된다. 여기서는 객관적 현실의 똑같은 사태와 똑같은 논리적 관계가 통사적으로 완전히 다르게 실현된다.

(30) Es gelingt ihm...

(30a) He succeed in...

(30b) Il réussit à...

이와같이 상이한 층위에 따른 Valenz는 언제나 다른 요소와 결합할 수 있는 능력(그것이 논리 의미론적 층위이던 통사 형태론적 층위이던 상관 없이)과 특정한 다른 요소에 의해서 충전될 수 있거나 충전되어야하는 일정한 수의 빈자리를 열어놓고 있는 능력이 있다.

### 4) Semantischer Kasus

논리 의미론적 결합가의 기술을 위한 실마리는 Fillmore(1971)의 Agentiv, Instrumental, Dativ, Lokativ, Objektiv와 같은 격이론에서 제시되었다. 그러나 Nom. Gen. Dat. Akk.와 같은 여태까지의 독일어의 격은 단지 표층형식으로서만 나타났고, 의미론적 격관계에 대해서 중화(Neutralisierung)적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Gen.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Helbig 1982, S. 55).

(31) die Ausstellung *des Grafikers* (Agentiv bzw. Agens)

(32) die Ausstellung *der Grafiken* (Objektiv bzw. Patiens)

마찬가지로 다음(33~35)의 예문중의 Nom.격의 의미론적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미론적 격이나 격열함이 심층격(Tiefenkasus)으로서 파악되어야 한다.

(33) *Er* warf den Ball. (=Agens)

(34) *Er* erhielt einen Schlag. (=Patiens)

(35) *Er* bekam ein Geschenk. (=Adressat)

그렇게 되면 Subjekt는 동일한 동사의 주어가 가질 수 있는 의미론적 차이도 구분이 가능하다.

(36) *Der Lehrer* schließt die Tür. (=Agentiv. bzw. Agens)

(37) *Der Riegel* schließt die Tür. (=Instrumental)

(38) *Die Tür* schließt (sich). (=Objektiv bzw. Patiens)

이러한 의미론적 격으로 의미론적으로 등가이거나 거의 등가이면서도 통사적으로 구분이 되는 문장은 이 등가가 기술에 반영되도록 기술될 수 있다(Ebenda).

(39) Der Lehrer trat *in das Klassenzimmer*.

(40) Der Lehrer betrat *das Klassenzimmer*.

## 5) 문제점

이상과 같은 격이론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상당한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우선 이를 간략히 기술해 보면 다음 여섯 가지다.

1. Kasusgrammatik은 단지 문장성분이나 의미론적 격만이 표현될 수 있는 심층구조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Subjekt-Objekt-Grammatik에 대한 대안이 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 않다. 따라서 통사적, 의미론적, 논리적 심층구조로 구분되어야 하는 것.

2. 동사의 의미론적 자질안에 있는 것을 의미론적 격에 의해 술어적 환경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

3. 의미론적 구조에서 수의적 심층격을 가정하는 것.

4. 하위범주화. 즉 Zeit, Ort, Ausgangspunkt, Ziel 등이 의미론적 격으로서 간주될 수 있는지의 여부.

5. 개개의 의미론적 격의 한계를 구분하는 것.

6. 용어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여기에는 다음 두 가지가 어려운 점으로 부각된다.

a) 의미론적 격으로 사용된 용어가 표층격의 용어인 Dativ로 나타나고,

b) 문장성분의 용어인 Objektiv와 Objekt가 겹쳐져서 나타나고 있다.

이때 우리는 a)의 경우 Dativ대신에 Adressat로 전환시키고 b)의 경우는 Objektiv와 Objekt 대신 Patiens로 전환시켜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 차이점을 별로 찾아볼 수 없는 용어상의 문제다.

### V. 상이한 층위간의 관계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문제에서 보면 마치 격이론은 확대 발전될 수 있는 실마리가 제공될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오히려 그 반대다. 통사적 Valenz와 의미론적 자질분석의 모델들이 제공해 줄 수 없는 것들을 논리 의미론적 Valenz들이 더 명시화된 모델들을 확장시켜주리라고 기대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가지 기술모델들이 어떤 관계에 놓여 있고 또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할 수 없는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1. 통사론적 Valenz의 모델은 Helbig의 Valenz사전에서 Valenzträger의 통사, 의미론적 환경을 기술하고 있으나 동사의 의미적 자질분석은 하지 않고 단지 통사적으로 Aktant를 구분시킬 수 있는 환경만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는 표층격과 표층문장성분의 형태로 Aktant의 수와 종류만이 제시되고 있다. 반면에

2. 논리 의미론적 Valenz의 모델은 통사적 격의 형태로 논항의 수와 종류를 전달하고 있다. 이 모델은

- a) 통사적 하위범주화에 의해서 동사와 결부되어 있는 Aktant를 가짐으로써
- b) 통사적 Valenz가 전달해주는 표층면을 포기함으로써

통사적 Valenz의 모델과 구분된다. 이양자에게 공통적인 것은 이 양자가 동사의 자질분석(Merkmalanalyse)을 제공해 주지도 않고 또 명사적 환경의 완전한 자질분석도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논리 의미론적 Valenz의 모델은 통사론적 Valenz와 꼭 마찬가지로 동사의 의미를 기술해주지 않는다. 또한 환경의 완전한 의미도 기술해주지 않을뿐더러 통사적 Valenz와는 달리 의미론적 격의 통사적 표층의 실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3. 의미론적 성분분석(Komponentenanalyse)은 통사적 Valenz와 논리 의미론적 Valenz의 모델들에서 채워지지 않고 있는 자리를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 (41)에서 보듯이 이 세 모델들은 각기 상이한 층위에서 각기 상이한 정보를 제공해주면서 상호보완적으로 내적 결속속에서 복합적 기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주고 있다.

(41)

	통사적 Valenz	논리 의미론적 Valenz	의미론적 자질분석
동사나 다른 Valenzträger의 완전한 의미론적 자질분석	-	-	+
환경의 완전한 의미론적 자질분석	- [±Anim] 등만	- [Agens] 등만	+
표층격의 정보	+	-	-
표층문장성분의 정보	+	-	-
의미론적 격의 정보	-	+	-

## Ⅶ. 통사론적 Valenz와 논리 의미론적 Valenz에 의한 어휘항

통사론적 Valenz를 근거로한 Helbig/Schenkel(1975)과 Helbig/Buscha(1986)의 어휘항은 표층문장의 특징만을 반영하고 있다. (42)의 선형적인 표층에서 나타난 Inf.는 (42a)처럼 심층구조에서는 독립문장이 된다.

(42) sehen→Sn, Sa/pS/NS(I)

Wir sehen ihn kommen.

(42a) Wir sehen ihn. Er kommt.

논리 의미론적 Valenz를 근거로한 어휘항은 표층구조에서 드러나지 않는 논항이 통사적 Valenz로는 기술될 수 없으나 논리 의미론적 Valenz로는 기술될 수 있다. (43)에서는 bezahlen의 의미구조가 통사론적 표층에서는 실현되지 않는 의미론적 구조 Geld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미구조가 표층에서 꼭 명시해 주어야 할 때는 Geld같은 논항을 취한다.

(43) Er bezahlt (ihm) das Buch.

(44) \*Er bezahlt es dem Kaufmann mit Geld.

(44a) Er bezahlt es dem Kaufmann mit barem Geld.

(44b) Er bezahlt die Ware mit 300 DM.

(44c) Er bezahlt mit Geld, nicht mit Fellen.

표층에서 통사적 Valenz측면이 아니라 논리 의미론적 Valenz측면에서만 기술될 수 있는 논항이 있다는 사실도(44 a~c)와 연관된다.

(45) Er raubt ihr das Geld.

(45a) Er beraubt sie des Geldes.

(46) Er stiehlt ihr das Geld.

(46a) Er bestiehlt sie des Geldes.

이상의 네개의 동사에서는 통사적으로는 상이하게 실현되고 있지만 논리 의미론적으로는 Agens, Patiens, Adressat라는 세개의 논항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면 표층에서 berauben만 Patiens가 나타날 수 있고 bestehlen의 경우는 제한적으로 Patiens가 나타난다.

그러기 때문에 격문법을 이용한 논리 의미론적 Valenz의 기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논리학의 규칙에 의해 문장을 술어와 논항(a, b, c)의 통합체로서 파악해야 할 것이다.

(47) schlafen→Pa Peter schläft.

(48) schlagen→Pa,b Peter schlägt seinen Bruder.

(49) geben→Pa,b,c Peter gibt ihr das Bu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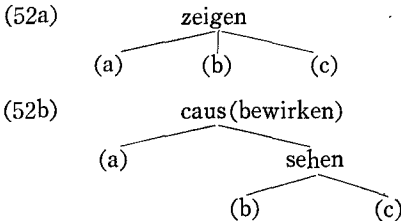
이런 방법으로 논리 의미론적 Valenz에서는 복합술어의 완전한 의미가 파악될 수 있다.

(50) überzeugen a,b,c=caus<sub>a</sub>(glauben<sub>b,c</sub>)

(51) töten a,b=caus<sub>a</sub>(sterben<sub>b</sub>)

(52) zeigen a,b,c=caus<sub>a</sub>(sehen<sub>b,c</sub>)

수형도를 이용하면 전체 의미를 파악하기가 더 쉬울 것이다.



논항의 수에 대한 논리적 제시가 의미론적 격의 형태로 논항의 의미론적 종류와 결합되면, 해당 어휘항을 논리의미론적 Valenz의 토대위에서 나타낸다.

(53) (sich) öffnen O+(I)+(A)

(54) geben O+D+A

(55) kochen O+(A)

(53a) Die Tür öffnet sich.

(53b) Peter öffnet die Tür.

(53c) Der Schlüssel öffnet die Tür.

(53d) Peter öffnet die Tür mit dem Schlüssel.

(53a~d)에서 보다시피 문장성분(Subj., Obj.)과 의미론적 격 사이의 결합은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고 여러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 VII. 동사의 Valenz

동사는 문장에서 주된 Valenzträger이므로 개별 품사의 결합가 논의는 동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다. 모든 품사에 대하여 우선 원심적 Valenz와 구심적 Valenz사이의 구분(Vgl. Tesnière S. 37f, Vgl. II) 및 Valenzträger와 Valenz 파트너의 구분이 필요했다.

원심적 Valenz는 다른 하위어가 일정한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상위어의 능력이고 구심적 Valenz는 상위어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하위어의 능력을 말한다. Valenzträger는 빈자리를 열어놓고 원심적 Valenz가 되는 상위어고 Valenz파트너는 빈자리를 충진시키는 하위어다. Valenzträger는 빈자리를 갖고 Valenz파트너는 빈자리를 충진시킨다. 문장에서 단어들의 결합가능성은 Valenzträger의 원심적 Valenz와 Valenz 파트너의 구심적 Valenz 사이의 상호관계에서 발생한다. 형용사와 명사는 원심적 Valenz와 구심적 Valenz를 아울러 갖는다. 동사는 일반적으로 Valenzträger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위 품사들과 구분된다. (동사

가 Valenz 파트너로 되는 경우는 AcI(Akkusativ mit Infinitiv)일때는 가능하다.)

이와같이 동사는 Valenzträger로 문장의 구조적 중심으로서 문장을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종래의 문장을 주어—술어—관계로 분석해 오던 기존의 분석과는 구별되고 어떤 문장에서 각 단어는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의사소통이라는 관점에서는 종종 주어—술어가 근본적인 문장성분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문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직접 파악할 수 없는 문장의 의사소통적 전달내용과도 구분된다. 이것의 특징은 주어가 다른 Valenz 파트너에 대한 우위를 상실하게 되고 같이 Valenz 파트너로 간주된다.

Valenz 파트너에 대한 논의는 벌써 Helbig, Kalepky, Jespersen, Glinz, Regula(Vgl. 이병찬 1990 S. 488ff)와 Andresen(1973) 등에도 나와 있다. 특히 Andresen은 교환방식(Kommütierprobe)으로 동사 어휘는 파트너로서 일정한 격을 요구하고 격은 일정한 동사어휘가 아니라 어휘부류를 요구함으로써 술어에 지배적 단위가 있다는 것을 주장했다(Andresen 1973, S. 57f). 「술어가 지배적 단위다」(Das Prädikat ist ‚regierende Einheit.‘) (Ebenda S. 58)라는 것은 문장을 만들 때 선택된 동사에 따라서 그 파트너로서 일정한 문장성분의 종류와 수를 구조적으로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선결과제라는 말과 같다. 파트너가 되는 이 문장성분을 Aktant라 한다. 자유 첨가어(freie Angabe)는 동사의 구조적인 위치 배치도에 미리 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수와도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Aktant와는 구별된다. 다시 말하면 「Aktant의 격과 동사의 어휘항은 서로 밀접한 내적 연관성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변화는 다른 것의 변화를 제약함으로써 자유 첨가어는 형태론적으로 다른 통합(Syntagma)과 무관하다」(Ebenda S. 59).

(56) Er mag es schon seit langem/das ganze Jahr.

(56a) Ich mag es schon seit langem/d.g.J.

(57) \*Er hält viel von den ganzen Tag.

(57a) Er hält viel von dem ganzen Tag.

이 Aktant와 자유 첨가어의 구분을 위한 기준들이 Schulz/Griesbach, Grebe, Erben, Engel 등에 의하여(Vgl. 이병찬 1990 S. 571ff) 여러가지로 제안되어 왔지만 아직 정설은 없다. 논의의 초점도 대부분 장소-, 방향-, 시간 규정사(Engel/Schumacher의 E<sub>5</sub>와 E<sub>6</sub>)에 집중되어 있지만 그것이 Aktant나 Angabe냐를 확정지어 구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상이한 종류의 필요한 Aktant는 상이한 언어적 층위와 연관을 갖고있기 때문이다. 층위에 따라 무엇이 필수적인 Aktant이고 아닌가가 구분된다. 이 Aktant는 또 의무적이고 수의적인 Aktant로 구분된다. 의무적 Aktant는 어떤 문장이 비문법적 문장을 생산해 내지 않으려면 그 문장에서 삭제시켜서는 안되는 문법적 성분을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58)은 비 문법적 문장이고 (59)는 문법적 문장이다. (58)은 동사의 위치 배치도에 포함되어 있고 Valenz와 결부되어 있는 필수적 방향성부사규정사가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비문법적 문장

이고 (59)는 (58)과 마찬가지로 동사의 위치 배치도에 포함되어 있고 Valenz와 결부되어 있지만 문맥에 따라서 삭제될 수 있는 수의적 Aktant가 삭제된 것이다(Vgl. Ebenda S. 484ff).

이와같이 지배적 단위로서의 술어는 그 파트너가 되는 Aktant로서 의무적이거나 수의적인 Aktant 이외에 자유 첨가어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58) \*Der Obstgarten liegt.

(59) Der Arzt operiert.

이 Aktant와 자유 첨가에 대해서는 이병찬 1981, 1982, 1984, 1990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를 바가 있다. 이 중에서 아직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는 Panevová, Sgall, Conrad의 것이 있다.

Panevová와 Sgall의 조작기준으로서는 Dialogtest를 들 수 있다. 여기서는 표층구조에서 생략되지만 의미론적 층위에서 의무적으로 존재하는 성분을 문제시한다.

(60) Die Neubauers sind gekommen.

(60a) A: Wohin sind sie gekommen?

(60b) B: Das weiß ich nicht.

(60c) A: Wann sind sie gekommen?

(60d) B: Das weiß ich nicht.

위의 (60b)는 (60a)의 대답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Ort가 의미론적으로 의무적이다. 이와 반면에 (60c)는 (60)에 대한 질문으로 그리고 (60d)는 (60c)에 대한 답으로 가능하다. 이것은 이와같은 경우에 Zeit가 의미론적으로 의무적인 성분이 아니라란 것에 대한 증거다.

Panevová와 Sgall은 이 Dialogtest를 가지고 어렵지 않게 의무적이고 수의적인 성분을 분류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의미론적 Valenz에 대해 논쟁이나 또는 의미론적 격이나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미론적 층위에서의 절차가 문제다. 동시에 의미론적 Valenz에 직접 상응할 필요가 없는 통사적 Valenz에 대한 확인은 불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의무적인 것과 수의적인 것에 대한 용어는 이와 연관해서는 잘못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두 개념은 통사론적으로 이해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통사론적 Valenz모델에서 보다는 달리 사용되고 있다. 결국 Sgall자신은 의미론적으로 의무적인 Aktant와 (Dialogtest에서 규명되어지는 Aktant) 동사에서 의미론적으로는 의무적이 아니나 표층구조에서는 Subjekt와 Objekt로 나타나야하는 모든 Aktant를 Kasusrahmen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표층기준이 의미론적으로 생각된 구분에서 생겨난 것이다(Helbig 1982 S. 33ff.에서 재인용).

Conrad는 의문문의 연구에서 의문문의 종류로서 논항적 W-의문문(propositionale Ergänzungsfrage)이라는 것이 있고 또 전통적으로 Ja/Nein결정 의문문을 Satzfrage와 Entscheidungs-

frage라는 용어로 대등시 하거나 W-의문문을 Wortfrage와 Ergänzungsfrage라는 용어로 대등시하는 것은 옳지않다고 보았다. 또 Was macht/tut x?와 같은 논항적 W-의문문에 대한 답이 동사의 것이던, 목적어의 것이던, 동사와 목적어의 것이던, 또 전체 동사복합의 것이던 상관의 없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Was macht/tut x?문에서는 자유로운 부사규정사만 나와도 좋지만 Valenz를 가져야 하는 성분은 나와서는 안된다.

(61) Was machte er *gestern abend*? (=freie Angabe)

(61a) Er fuhr nach Pusan.

(61b) \*Was machte er *nach Pusan*? (=Aktant)

그러나 이것은 역이 될 수도 있다. 즉 Valenz를 가져야 하는 성분과 자유성분간의 어려운 구분을 하기위한 기준에 상응하는 의문문의 기능이 역이 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하나의 성분이 Was macht x? 문장에 포함되어져 있으면 그 성분은 이에 상응하는 답형식문장에 나타나는 동사에는 그 파트너로서 Aktant가 아니고 자유첨가어가 된다.

(62) Was machte er *gestern abend*?

(62a) Er arbeitete *gestern abend*.

(63) Was machte er in *Dresden*?

(63a) Er hielt *in Dresden* eine Vorlesung.

이와 반면에 Was macht x? 문장에 어떤 하나의 성분이 포함될 수 없으면 그것은 이에 상응하는 답형식문장에 나타나는 동사에 대해 Aktant가 된다.

(64) \*Was machte er in die *Stadt*?

(64a) Er begleitete sie in die *Stadt*.

어떻던 이 기준은 Was macht x? 문장이 이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그 한계가 있다. Was macht x? 문장은 x가 Agens 기능을 가질 때만 사용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의문문 속에는 Valenz를 가져야 하지만 답은 기대할 수 없는 성분도 있다.

(65) Was macht er im *Bett*?

(65a) →Er liegt *im Bett*. (=Aktant)

(65b) →Er arbeitet *im Bett*. (=freie Angabe)

(66c) →Er spielt *im Bett*. (=freie Angabe)

의문문이 Was macht x?가 아닐 때는 (x의 Agens 특성이 없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다른 논항적 W-의문문이 가능하다(Ebenda).

(67) Was geschieht mit x(ist mit x) in *Dresden*?

→x stirbt *in Dresden*. (=freie Angabe)

(67a) Was geschieht mit x (ist mit x) in *Dresden*?



→x wohnt in Dresden. (=Aktant)

## VIII. 결 론

Valenz개념의 출발은 Tesnière의 구심적 Valenz와 원심적 Valenz다. 이 출발점에서는 어휘들 간의 통사적으로 통합적 관계가 중요 초점이었다. 그러나 이 통사론적 특성은 의미론적 특성과 상호작용을 하게 됨으로 표현층위의 형식적 현상이 개념적 보편적 층위의 형식적 현상으로 파악되게 되었다. 그 결과 Valenz에 나타나는 양적인 표현이 질적인 표현과 겹쳐지게 되고 전통적인 *circonstants*의 일부가 Aktant로 변모되었다. 이 질적인 표현은 통사적 환경과 의미론적 환경에 따라서 표현하게 되고 이 표현을 위한 규칙은 생성변형문법의 엄밀하위범주화규칙 및 선택규칙과 동일시 되었다. 의미론적 어휘론적인 문제도 중요시되어 Porzig와 Grebe적인 의미에서 해당 어휘의 모든 Valenz가능성을 의미론적 통사론적 밭(Feld)으로 보는 경향이 생겨났다. 이로 인해 어떤 동사의 통사론적 환경을 확정해주는 것만으로 부족한 Valenz에 대해서도 철저히 규명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반적인 종류의 의미론적 자질이 이미 사용되었고 이는 나아가 핵의미자질로 계속 분화되고 Valenzträger의 의미론적 자질과 관련되게 되었다.

개별언어를 넘어서는 개념내용들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논리적 Valenz, 의미구성소의 Valenz가능성을 증시하는 의미론적 Valenz, 개별언어에 따라 상이한 종류의 빈자리를 의무적으로 또는 수의적으로 채우는 통사론적 Valenz 등의 층위별 Valenz를 기술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격이론이 원용되나 이것은 단지 문장성분이나 의미론적 격만이 표현될 수 있는 심층구조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통사론적, 의미론적, 논리적 심층구조로 구분되어야 하는 실마리를 제공해 주었을 뿐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이 상이한 층위들의 모델이 다른 모델을 통해 대치 될 수 없고, 복합적인 기술을 위해서는 이 세 모델이 서로 보완되고 통합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각 층위별의 어휘항과 Valenz는 층위별로 취급했다.

동사의 Valenz에서는 동사가 문장에서 주된 Valenzträger이므로 우선 구심적 Valenz와 원심적 Valenz를 구분하고 또 Valenzträger와 Valenz 파트너를 구분했다. 이 때 Valenz는 의무적 Aktant와 수의적 Aktant 그리고 자유 첨가어로 구분했으나 이미 필자가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한 바가 있으므로 Panevová, Sgall, Conrad의 구분법을 Helbig(1982)에 따라 첨가시켰을 뿐이다. Bluhm의 통신적 필요성의 개념(이병찬 1981 S. 63f)을 도입하려 하였으나 그와 같은 화용론적 Valenz는 언어체계와 통신간의 관계를 폭넓게 논증된 것이고 결국에는 각 층위간의 차이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논의에서는 제외시켰다.

**Literaturverzeichnis**

- Admoni, W. 1970 Der deutsche Sprachbau. München.
- Bierwisch, M. 1967 Grammatik des deutschen Verbs. In: Studia Grammatica. Berlin.
- Bondzio, W. 1971 Valenz, Bedeutung und Satzmodelle. In: Beiträge zur Valenztheorie  
Herausgegeben von G. Helbig. Leipzig.
- Brinkmann, H. 1971 Die deutsche Sprache. Düsseldorf.
- Bühler, K. 1965 Sprachtheorie, Gustav Fischer Verlag. Stuttgart.
- Engel, U. 1977 Syntax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Erich Schmidt Verlag.
- Engel, U./ Schumacher, H. 1978 Kleines Valenzlexikon deutscher Verben. TBL Verlag  
Gunter Narr, Tübingen.
- Engelen, B. 1975 Untersuchungen zu Satzplan und Wortfeld in der geschriebenen deutschen  
Sprache der Gegenwart. Teil I, II. München.
- Erben, J. 1972 Abriß der deutschen Grammatik. Max Huber. München.
- Fillmore, Ch. J. 1971 Plädoyer für Kasus In: Kasustheorie. Hrsg. A. Abraham. Frankfurt  
a. M.
- Flämig, W. 1971 Valenztheorie und Schulgrammatik In: Beiträge zur Valenztheorie. Halle.
- Grebe, P. 1959/1966 Der Große Duden. Grammatik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Mannheim.
- Grebe, P. 1966 Der semantisch-syntaktische Hof unserer Wörter. In: Satz und Wort im  
heutigen Deutsch. Düsseldorf.
- Helbig, G. 1966 Untersuchungen zur Valenz und Distribution deutscher Verben. Leipzig.
- Helbig, G. 1979 Zum Status der Valenz und der semantischen Kasus. In: DaF. Leipzig.
- Helbig, G. 1982 Valenz-Satzglieder-semantische Kasus, Satzmodelle. VEB Verlag Enzyklo-  
pädie. Leipzig.
- Helbig, 1985 Valenz und Kommunikation. In: DaF. Leipzig.
- Helbig, G./Buscha, J. 1986 Deutsche Grammatik. VEB Verlag, Leipzig.
- Helbig, G./Schenkel, W. 1975 Wörterbuch zur Valenz und Distribution deutscher Verben.  
Tübingen.
- Heringer, H.J. 1967 Wertigkeit und nullwertige Verben im Deutschen. In: Zfdtspr. 23.
- Junker, K. 1969 Zur Valenz beim Adjektiv. In: WZ der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 Klein, W. 1971 Parsing. Linguistische Forschung 2. Frankfurt a.M.

Stepanova, M.D./Helbig, G. 1978 Wortarten und das Problem der Valenz in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VEB Verlag. Leipzig.

Tesnière, L. (Übers. von Engel, U.) 1980 Grundzüge der strukturalen Syntax Klett-Cotta. Stuttgart.

이병찬, 1982, 자율적 의미체에 나타나는 Valenz의 문제점. 인문논총 9집

\_\_\_\_\_, 1981, 독일말의 양도불가능소유 연구. 서울대출판부

\_\_\_\_\_, 1984, 보족어와 첨가어 설정의 문제점. 독일문학 34집. 한국독어독문학회

\_\_\_\_\_, 1990, 의존문법의 이론과 실제. 세기문화사.

## 《Zusammenfassung》

**Die Theorie der Dependenzgrammatik**

—besonders im Problem der Valenz—

**Byong-Tschan Rhie**

In dieser Abhandlung habe ich einige Probleme des Valenzbegriffs untersucht. Es handelt sich dabei nicht nur um eine paradigmatische Analyse, sondern auch um eine syntagmatische Analyse, weil sich die Wörter einer Sprache im konkreten Redeakt, im Satz immer mit bestimmten Partnern verbinden und niemals isoliert auftreten. Deshalb bestehen auch die paradigmatischen und die syntagmatischen Eigenschaften der Wörter nicht unabhängig voneinander, sondern stehen in wechselseitiger Determination zueinander. Ausgehend von diesem Begriff werden im Zusammenhang mit der Valenz solche Glieder erfaßt, die valenzabhängig, "konstitutiv" sind. Bei der Valenz handelt es sich aber immer um die Fähigkeit, sei es auf logisch-semanticischer oder auf syntaktisch-morphologischer Ebene, sich mit anderen Elementen zu verbinden, um die Fähigkeit, eine bestimmte Anzahl von Leerstellen zu eröffnen, die durch bestimmte andere Elemente besetzt werden. Auf dem Hintergrund dieser Gemeinsamkeit muß man sich von verschiedenen Ebenen unterscheiden, weil die logische Valenz eine außereinzelsprachliche Relation zwischen Begriffsinhalten ist, sich die semantische Valenz aus der Verträglichkeit und Kombinierbarkeit von Bedeutungskomponenten ergibt, die syntaktische Valenz die obligatorische oder fakultative Besetzung von Leerstellen in einer bestimmten Zahl und meint, die nach Einzelsprachen differenziert ist.

Bei meiner Darstellung der Valenz einzelner Wortarten denke ich es am zweckmäßigsten, vom Verb auszugehen, weil das Verb der hauptsächlichste Valenzträger im Satz ist und deshalb die Zusammenhänge der Valenz zuerst und meistens am Verb illustriert worden sind. Dafür bedarf es zunächst der Unterscheidung zwischen zentrifugaler Valenz und zentripetaler Valenz sowie zwischen Valenzträger und Valenzpartnern.